

# 日영화 3대 거장 오즈 야스지로 회고전

광주극장 내달 1일~24일 '동경 이야기' 등 9편 상영

31일 영화 '흙' 선 보여

내달 5일 구자환 감독

7일 위상복 교수 대화의 시간



오즈 야스지로 감독.

광주극장이 일본의 영화감독 오즈 야스지로의 회고전과 다양한 가족영화를 상영한다. 먼저 일본 영화계의 거장 오즈 야스지로 감독의 회고전을 6월 1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한다.

오즈는 미조구치 겐지, 구로사와 아키라와 함께 일본영화의 3대 거장으로 꼽힌다. 쇼치쿠영화사에 들어가 영화를 배운 그는 1927년부터 직접 연출을 맡기 시작했다. 이후 1963년 60세로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에 이르는 활동기간동안 53편의 영화를 만들었다. 그의 영화에는 일본의 평범한

일상이 등장한다. 가족간의 유대감, 결혼, 관계, 세대 간의 갈등 등 일상의 희로애락을 섬세하게 표현했다.

그의 영화는 일상의 문제에 맞닥뜨린 인간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또 대도시 소시민들의 삶을 그려내는 데

에 집중했다. 인생의 덧없음과 느리지만 쉽게 이어지는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한 오즈의 영화들은 평범한 일상적 리듬을 통해 주제의식을 드러낸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총 9편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6월 1일과 2일에는 오즈의 초기 대표작 '태어나기는 했지만...' (1932)을 만날 수 있다.

이어 2일과 3일에는 딸을 결혼시키려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은 '늦봄' (1949)이 개봉하며 이어 '백추' (1951)는 6일과 9일에 상영한다.

1953년 개봉 당시의 전후 일본 가족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낸 작품 '동경이야기' (1953)는 8일과 9일, '피안화' (1958)는 13일과 15일, '안녕하세요' (1959)는 16일과 17일에 상영한다.

이밖에 '가을 햇살' (1960)은 22일, 23일, '꿈치의 맛' (1962)은 23일, 24일에 만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카페(cafe.naver.com/cinemagwangju/1199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오는 31일에는 영화 '흙'을 선보인다. '흙'은 열네 살 소년인 가족들을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가족 성장 드라마로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두 딸을 인도 최초의 국제대회 여성 레슬링 금메달리스트로 키운 아버지의 성공신화를 그린 영화 '당갈'은 6월 3일 상영한다.

또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0년 6·25 전쟁 무렵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자행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해일'의 구자환 감독이 등장하는 관객과의 대화는 6월 5일 오후 7시20분 영화 상영 후 마련된다.

카를 마르크스의 젊은 날을 그린 영화 '청년 마르크스'는 6월 7일 저녁 7시20분에 상영한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전남대 철학과 위상복 교수의 토크가 진행된다.

영화는 카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을 집필하기 전에 겪은 사랑과 우정, 그리고 뜨거운 꿈과 이상을 그렸다. 문의 062-224-5858. /전재제 기자 ej6621@

## 박찬욱·찬경 형제 광주 영화팬 만나다

ACC 문화정보원 내달 6일 '파킹찬스 시네마 토크'



영화감독 박찬욱(왼쪽)·박찬경 형제가 광주에서 영화팬들을 만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은 현재 ACC 문화창조원 복합5관에서 진행되는 '파킹찬스(PARKing CHANce) 2010-2018' 전(7월8일까지) 연계 행사 '파킹찬스 시네마'를 개최한다. 6월 6일 오후 3시 ACC 문화정보원(라이브러리파크) 극장 3.

지난 4월 개막한 이번 전시는 영화감독 박찬욱과 현대미술작가 박찬경이 '파킹찬스'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0년부터 제작한 모든 작품을 소개하는 첫 대규모 전시로, 영화와 현대미술, 전통과 현대사회 그리고 매체나 장르의 경계에서 모든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조망하고 있다.

'파킹찬스 시네마 토크'는 ACC 지원

으로 제작된 신작 단편영화 '반신반의'를 극장에서 감상하고 두 감독을 직접 만나는 자리다. 이번 전시의 큐레이터인 김성원 전시사업본부 예술감독이 진행하며 파킹찬스의 영화와 전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반신반의'는 오랜 기간 분단 상황에서 실제 남북을 오간 인물에 영감을 받아 쓰인 각본과 이중스파이를 모티브로 실제와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만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분단 상황과 남북 관계를 묘사한 작품으로 현재 전시장에서 상영 중이다.

이번 토크는 무료로 열리며 온라인 사전신청(<https://goo.gl/forms/psd7bFRIOBdxriJ3>)과 현장 선착순 접수(062-602-4526)로 참여가능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화 '피안화'



영화 '안녕하세요'

## “박용철·김현승 기억하고 ‘광주정신’ 담는 공간돼야”

광주시 문화관 건립

민간 추진위원회 간담회

최근 '광주시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돼 문화관 건립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문화단체 중심의 민간 추진위원회(위원장 임원식·박관서)가 29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예총 방울소리공연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 임원진과 나종영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손광은 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 최상

준 용아박용철기념사업회 이사장, 30여 명의 추진위원들과 문학인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광주문화관의 필요성 및 타 지역문화관과의 차별성, 문화관 입지 선정 등 현안뿐 아니라 문화단체 차원의 의견 수렴 방안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들은 한국문학을 선도해온 역사성, 민주·평화·인권 도시의 정체성, 예향 광주의 위상에 토대를 둔 문화관 건립을 강조했다. 또한 미흡한 문화관련 인프라 확충과 용아 박용철 시인, 대형 김현승 시인을 재조명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역설했다.

임원식 광주문인협회 회장은 “광주문화관 건립을 위해 문단,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오늘의 간담회는 만시지탄의 감회가 든다”고 그동안의 소감을 피력했다.

박관서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도 “광주문화관이 건립되면 문학인과 민간전문가가 주체가 돼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추진위원들은 향후 시 차원의 추진 위원회는 구성단계부터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인사나 문화관 부지 등과 관련해 잡음이 있었던 인사는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함목소리로 강조했다.

문화관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하나인 광주와 전남을 아우르는 데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나종영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은 “문학관은 남도를 아우르는 콘텐츠뿐 아니라 ‘광주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앞서 이튿날 추진위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광주시 문화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추진 결과와 배경 등을 설명했다. 지난 4월 16일 본 회의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영상으로 만나는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

광주문화재단

31일 ‘썩은 스크린’



제24회 서울어린이연극상 대상·연출상·연기상·최고인기상을 수상한 어린이 음악극 ‘봉장취’를 영상으로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썩은 스크린’ 프로그램으로 오는 31일(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5층 소공연장)에서 2017년 예술의전당 어린이연극시리즈로 선보였던 음악극 ‘봉장취’를 상영한다.

음악극 ‘봉장취’는 꿈을 찾아 떠나는 새들의 이야기다. 봉장취는 조선 후기 봉황에 관한 재담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던

전통음악으로 현재 이야기는 사라지고 음악만 전해온다. 극단 복새룡은 이를 토대로 오늘날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창조해냈다.

4명의 배우가 가야금·해금·장구 등 전통악기를 라이브로 연주하며 주변의 사물로 만든 아가자기한 인형과 소품들이 상상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상영작은 6월 14일(오후 7시 30분) ‘김선숙 피아노 리사이틀’이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 회/원/모/집 신양파크 휘트니스 멤버십

회원특전

- 무료이용** · 사우나 및 휴게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 수영장
- 특전사항** · 회원 본인이 결제시만 가능함
- 객실 이용 시 주중 50% 주말(금, 토, 공휴일 전날) 30% D/C
- 골프연습장 이용 시 할인 (60Box:₩130,000 → ₩80,000)
- 레스토랑 및 중식당 10% DC (단, 룸 이용 시 10% DC 적용 안됨)
- 객실 이용 시 Check Out 14시 연장
- 에어로빅,수영 단체 레슨 무료
- 휘트니스 이용 시 회원 동반고객 50% DC

상담문의 062-228-4711, 2/221-4101, 3

보증금 및 연회비

구분	보증금	연회비 (VAT포함)	비고 (2018년 기준)
개인	850만원	₩ 1,920,000	1구좌 기명1인
가족	1275만원	₩ 3,140,000	1구좌 직계 1인 포함 / 1인 추가 시 425만원
법인	1700만원	₩ 4,350,000	1구좌 기명2인 무기명1인

**Shin Yang Park Hotel**  
MEMBERSHIP HOTEL & FITNESS CLUB